

기독교 통계

10월 3일(일요일) 기준, 전국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미실시 16%!

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회구조적 아픔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'양극화'이다.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, 코로나19가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. 더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경제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. 코로나19 이후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더 깊어지고,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데이터로 감지되고 있다.

또 교회 규모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난다, 최근 10년 사이에 소형 교회가 부쩍 많아졌는데,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10명, 20명 규모의 초소형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최근 보건복지부/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시설 중 16%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종교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 개신교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16%의 교회가 현재 잠시 중단하거나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것으로 봐야 해서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.

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[넘버즈] 116호에서는 한국 교회 소형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소개한다. 이어서 최근 발표된 '2020년 인구센서스 주요 조사 결과'를 다루었다. 한국 교회 소형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일어설 수 있길 기도한다.

일러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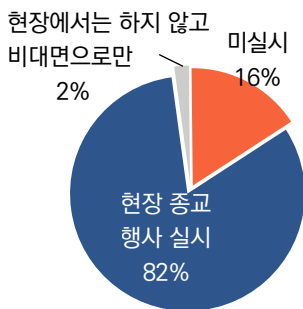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(생산자)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, 원 자료 출처(생산자)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

10월 3일(일요일) 기준, 전국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미실시 16%!

- 보건복지부/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 3일(일요일) 전국의 종교 시설 16,403개소를 대상으로 7,411명을 투입해 종교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, '현장 종교 행사(예배, 미사, 법회 등)를 드린 곳' 82%, '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실시' 2%, '미실시' 16%로 조사됐다.
- 이처럼 전체 종교 시설 기준으로 16%가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종교별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 개신교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, 한교총 소속 교회가 57,000여 개인 것을 고려할 때 무려 9,000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교회 운영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.

[그림] 10월 3일(일요일) 종교 시설의 종교 행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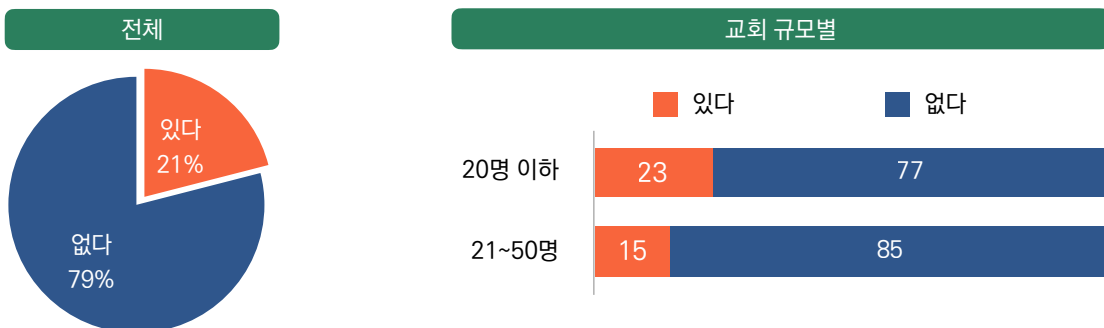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/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'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(COOV) 통해 접종 이력 확인 가능', 2021.10.05.
(국민일보, 2021.10.21, '대면예배 일부 허용에도 잠자는 교회 깨우는 노력을'
<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214470>)

● 소형 교회 목회자, '코로나19 이후 목회 포기할 마음 들었다' 21%

- 출석 교인 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목회를 포기할 마음이 든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(2021년 6월 조사), 5명 중 1명(21%) 정도가 '있다'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출석 교인 2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4명 중 1명(23%) 가까이가 목회 포기를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후 목회 포기 생각한 경험 (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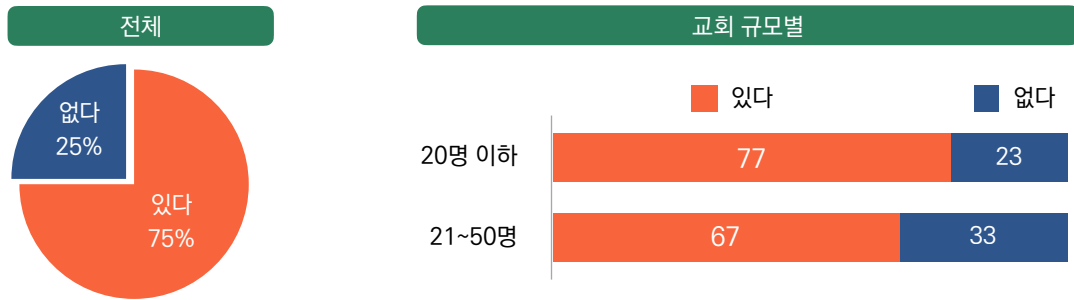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출처 : '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', 2021.08.25.
(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, 400명, 모바일조사, 2021. 6.10~6.17, 조사주관:목회데이터연구소, 조사주체:예장합동/예장통합/아시안미션/위비스/햇불회)

● 소형 교회 4개 중 3개 ‘존립 위기’ 걱정!

- ‘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?’ 걱정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, 소형 교회 목회자의 75%가 ‘있다’고 응답해, 코로나19로 인해 소형 교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.
- 이를 교인 수별로 살펴보면, 앞에서의 포기 경험과 동일하게 교인수 2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

[그림] ‘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’ 걱정한 경험(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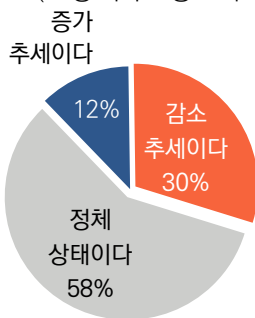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출처 : ‘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’, 2021.08.25.
(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, 400명, 모바일조사, 2021. 6.10~6.17, 조사주관:목회데이터연구소, 조사주체:예장합동/예장통합/아시아미션/위비스/햇불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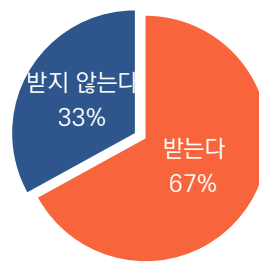
● 소형 교회, 교인 ‘감소한다’ 30%, ‘증가한다’ 12%

- 출석 교인 50명 이하 소형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재 교인 수 변동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, ‘감소 추세이다’ 30%. ‘증가 추세이다’ 12%로 교인수가 감소한다는 교회가 훨씬 많았다.
- 재정 형편이 어려운 소형 교회들은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, 조사 결과 소형 교회 중 현재 재정 지원을 받는 교회가 67%로 나타났다.

[그림] 교인 수 추세 (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)



[그림] 외부 재정 지원 받는지 여부 (50명 이하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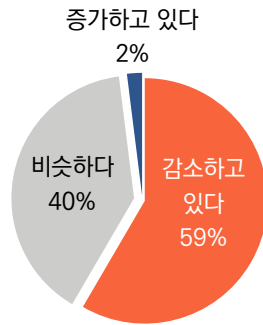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출처 : ‘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’, 2021.08.25.
(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, 400명, 모바일조사, 2021. 6.10~6.17, 조사주관:목회데이터연구소, 조사주체:예장합동/예장통합/아시아미션/위비스/햇불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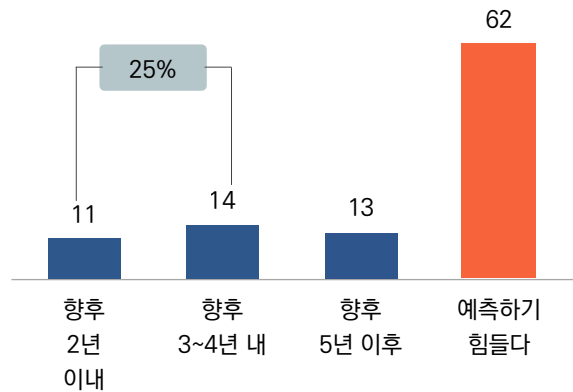
● 외부 지원받는 소형 교회, 외부 지원 ‘감소하고 있다’ 59%, ‘증가하고 있다’ 2%

- 외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소형 교회의 경우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, ‘감소하고 있다’ 59%, ‘증가하고 있다’ 2%로 감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.
- 또 현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언제쯤이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, 5명 중 3명의 목회자(62%)가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.

[그림] 외부 재정 지원 증감(지원받는 교회)



[그림] 외부 재정 불필요 예상 시기(지원받는 교회) (%)



* 자료 출처 : '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', 2021.08.25.

(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, 400명, 모바일조사, 2021. 6. 10-6.17, 조사주관:목회데이터연구소, 조사주체:예장합동/예장통합/아시아미션/위비스/햇불회)